

한국농어촌공사, ESG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 체결

✎ 한승희 기자 | ⓒ 승인 2025.07.10 18:43

“농어촌공 경남본부, 도내 공공기관과 ESG 협력 추진”

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, 이하 공사)는 10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도내 유관 공공기관과 ESG 컨소시엄 2기 발대식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.

이번 협약은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 등 5개 도내 공공기관이 참여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.

특히,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대학생 및 언론 기자단을 대상으로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스마트팜 등 농업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,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여 지역민과의 신뢰 구축 및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또한, 공사는 올해부터 지속가능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폐전기·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3웁(함께 비웁, 나눔, 채웁) 운동을 상·하반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손영식 본부장은 “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, ESG 경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 실현에 앞장서겠다”고 전했다.



한송희 기자 edit01@newsgn.com